

이금기 국제중식요리대회 개최

찰리 리 이금기 소스그룹 회장

“우수한 중식문화 전파 북한은 새로운 기회”

이금기 굴소스는 지난 1888년 우연한 기회에 만들어졌다. 당시 중국 광동성 항구도시 주하이 남수마을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이금상(李錦裳)은 어민들을 대상으로 굴 스프를 만들어 팔고 있었다. 어느 날 이금상은 식당에서 굴을 넣고 스프를 끓이다가 불 끄는 것을 잊어 버린다. 한참 시간이 지난 뒤 찾은 스프는 갈색으로 졸아버려 냄비 바닥에 놀 어붙게 됐다. 그런데 망쳤다고 생각한 요리에서 좋은 향이 나면서, 이것을 스스로 만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지금의 ‘이금기 굴소스’가 됐다.

이금기하면 떠오르는 굴소스는 한국에서 차이나타운에 있는 중식당에서만 조금씩 사용되다가 현재는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고 있다. 지난 1996년 오뚜기가 독점으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굴소스 외에도 두반장, 마늘콩소스, 치킨파우더, 검은콩소스 등을 선보이고 있다.

이금기가 개최하는 ‘이금기 영셰프 국제 중식 요리대회’는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본 대회는 이금기의 기업 사명인 ‘우수한 중식 문화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린다’를 바탕으로, 이를 계승할 세계 영셰프들을 양성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지난 19일 홍콩 ‘중화주예학원(CC 1)’에서 찰리 리(Charlie Lee) 이금기 소스그룹 회장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가 진행됐다. 리 회장은 회사의 설립자이자 굴소스를 개발한 이금상의 4대 손이자 3대 회장 이문달 회장의 셋째 아들로 아들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1980년대에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를 돋기 위해 이금기에 합류했다. 그는 회사 운영에 전문적인 교육 및 현대적인 기술과 함께 엄격한 제품 품질 관리 체계를 도입해 사업을 다각화했다. 이날 리 회장으로부터 이금기 국제 요리대회, 이금기의 대표제품인 굴소스, 그룹 경영에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리 회장은 ‘이금기 영셰프 국제 중식 요리대회’를 통해 중식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리 회장은 “요리대회라는 경영의 장을 마련하면 젊은 세대들이 조리기술을 서로 교류하게 되면서 발전할 수 있게 된다”며 “각 나라의 셰프들이 출전해 정해진 소스를 통해 음식을 만든다면 다양한 요리가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회 심사위원들이 세계 중식 권위자들로, 셰프들이 그들로 하



19일(현지시각) 이금기 영셰프 국제 중식 요리대회(Lee kum kee international young chef challenge)가 열리고 있는 홍콩 중화주예학원에서 찰리 리 이금기 소스그룹 회장이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



홍콩 이금기 본사에 이금기 소스들이 전시되어 있다.

/박인웅 기자

망친 요리서 뜻밖의 소스 발견 오늘의 ‘이금기 굴소스’로

오뚜기 독점 수입해 국내 판매 23년전부터 좋은 파트너사 지속

1000년 이상 기업 유지 목표

여금 본인들의 요리를 평가를 받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세계 중식 협회 등 전세계 중식 관계자들이 도움이 있어야 대회를 치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금기 그룹은 가족 경영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2002년에는 가족 위원회를 구성해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다. 경영 계승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리 회장은 “이금기는 1000년 이상 유지하고 싶은 기업이 되는게 목표이며, 중화권에 블로벌이 되고 싶은 기업”이라며 “긴 여정을 하기위해 (가족경영에 대한) 변화가 올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금기는 한국에서 오뚜기를 파트너사로 두고 있다. 두 회사의 관계는 우연한 기회에 시작됐다.

리 회장은 “정확 하지는 않지만 한식품박람회에서 이금기와 오뚜기를 모두 알고 있는 분이 소개를 했다. 그 시기에 두 회사는 서로에 관심이 있었던 상태였다”며 “오뚜기와 1996년 비즈니스를 시작해, 23년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멕시코 100년 이상된 파트너사가 있는데 오뚜기와도 그이상 가는 파트너사로 지내고 싶다”고 전했다. 리 회장은 특히 故 함태호 회장에 많은 것을 배웠다고 회상하면서 존경하는 분이라 전했다.

한편 이금기 굴소스 북한에서도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이금기의 북한 진출에 대한 생각도 들을 수 있었다.

리 회장은 “사람 있는 곳에 이금기 소스가 있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그룹을 운영한다. 만약 북한에 진출할 수 있다면 새로운 기회인 것은 분명하다”며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금기가 다른 국가에 진출했던 것처럼 비즈니스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박인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부음

- ▲ 오숙희씨 별세, 박기연(삼성물산 고문)씨 모친상, 정성우(지맥스 대표)씨 장모상 = 1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1일 오전 6시, 02-3410-6905
- ▲ 전혜선씨 별세, 배병길(금융감독원 특수은행감사국 반장)·배외수·배태순·배병용(국민은행 부장)·배병호씨 모친상 = 19일 대구 중앙요양병원, 발인 21일 오전 9시, 053-627-4444
- ▲ 이정복(한양대 철학과 명예교수)씨 별세, 이광원(호서대 안전보건학과 교수)·이재원(부여성묘원)

세병원장)·이금원(고려대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 교수)씨 부친상 = 19일 충남 천안하늘공원장례식장, 발인 21일 오전 7시, 041-621-8011

▲ 박남수씨 별세, 김종인(전 인천대학교 대외협력홍보팀장)씨 모친상 = 19일, 용인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설, 발인 21일 오전 6시 30분, 031-337-3100

▲ 소상국씨(건설공제조합 채권관리실장) 별세, 박장혁씨(더푸른이비인후과 원장) 동서상 = 19일, 수원 아주대학교병원, 발인 21일 오전 7시 45분, 031-219-4574.



LG유플러스 ‘2018한국 IR대상’ 우수상

유가증권시장 기업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LG유플러스 노숙원 IR팀장(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등 ‘2018 한국IR대상’ 수상기업 대표자들이 시상식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미래에셋생명, 저소득층 노인에 추석선물 전달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19일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포구 저소득층 노인 100여명에게 명절 선물세트를 포장해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가위 사랑과 행복 나눔’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미래에셋생명 임직원 봉사자들은 과일, 한과, 김, 잡곡 등을 포장해 ‘황금보따리 세트’를 만들었다. /미래에셋생명



하이트진로 노사 2018 임단협 타결

지난 19일 하이트진로 노사는 기본급 10만원 인상 등을 포함한 임단협 합의안에 사인하고 조인식을 체결했다. 조인식에는 김인규 하이트진로 사장과 안상진 진로 노동조합 위원장, 조기완 하이트맥주 노동조합 위원장을 포함한 교섭위원들이 참여했다. /하이트진로



맥도날드, 순직 소방관 유가족에 행복의 버거 전달

맥도날드는 지난 19일 추석을 앞두고 순직 소방관 유가족들에게 행복의 버거 이용권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청사에서 진행된 ‘맥도날드 행복의 버거 이용권 전달식’에는 신열우 소방정책국장, 김기화 한국맥도날드 상무 그리고 순직 소방관 유가족들이 참석했다. /맥도날드

오늘의 날씨

9월
21일(금)
음력 : 8월 12일

수도권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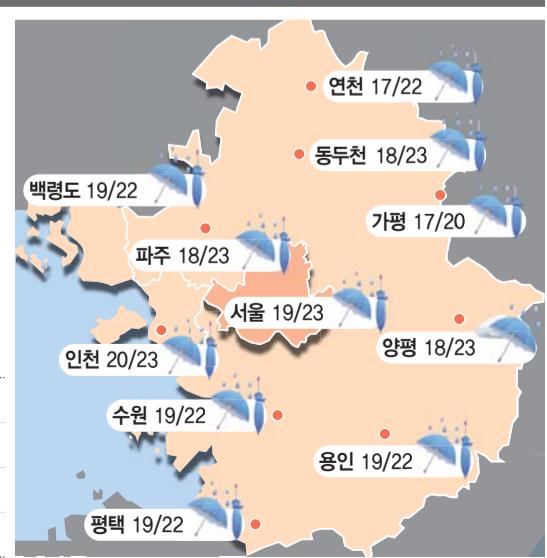
23~19°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